

도착하지 않은 편지

루미와 함께 길을 찾고, 책을 정리하고, 작은 단서를 모아 우리에게 온 편지를 열어 봐요.

오늘은 종이로 모험해요.

1. **준비:** 이 세트 10장과 연필. 색연필은 있으면 좋아요. 기억 놀이는 이 표지로 짝표를 가려요. 종이를 자르거나 숨길 필요가 없어요.
2. **나누기:** 아이 앞에는 2-6쪽의 놀이 5장. 어른은 7-9쪽의 힌트·정답을 따로 보관해요. 10쪽 마지막 편지는 뒤집어 두세요.
3. **시작:** 어른이 한 장씩 읽고 아이가 고르거나 적어요. 어른이 답과 규칙을 확인하고 '완성 뒤 읽기' 문장을 들려준 뒤 다음 장을 건네요. 휴대폰 확인은 필요 없어요.
4. **마무리:** 다섯 장을 함께하면 마지막 편지를 읽어요. 쉬고 싶으면 멈춰도, 도움받아 풀어도 괜찮아요.

속도나 점수 경쟁 없이, 한 장씩.
말하기·소리 내기·그림 그리기는 건너뛰어도 좋아요.

오늘 함께한 우리: _____

첫 배달을 도와줘

안녕! 나는 우편국 고양이 루미야. 오늘 처음으로 편지를 배달해. 그런데 주소가 없는 편지가 한 통 있네? 먼저 집배원 할아버지가 남긴 지도를 같이 보자.

> "집에서 출발해서 위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다시 위로 한 칸. 도착하는 곳에 첫 우표를 두었단다."

할아버지의 배달 지도 01

↑ 위쪽 오른쪽 →

8 호수	3 등대	6 언덕
2 다리	5 광장	1 숲길
4 집 · 출발	9 우물	7 정원

출발한 집부터 손가락으로 따라가 봐.

집 → ↑ 위 → → 오른쪽 → ↑ 위

집부터 지나가는 칸을 차례로 적어 줘.

순서대로 아래 빈칸에 이름이나 그림을 적어요. 글을 쓰기 어려우면 가리키고 어른이 적어 줘도 좋아요.

1	2	3	4

같이 이야기해요 (건너뛰어도 좋아요)

오늘 둘이 같이 가 보고 싶은 곳은 어디야?

책들이 집을 찾도록

우편국으로 돌아오니 책 네 권이 바닥에 누워 있어. 루미가 책을 보다가 그만 흐트러뜨렸대. “같이 제자리에 놓아 줄래? 책 사이에 다음 우표가 있을지도 몰라.”

> “별의 지도는 맨 왼쪽. 바람의 노래는 맨 오른쪽. 가운데에는 숲의 약속, 그 옆에 파도의 편지.”

제자리를 기다리는 책



02

1. 맨 왼쪽은 **별의 지도**.
2. 맨 오른쪽은 **바람의 노래**.
3. 가운데는 **숲의 약속** → **파도의 편지**.

책 제목을 하나씩 골라 줘.

책을 왼쪽에 놓을 것부터 골라 줘.

순서대로 아래 빈칸에 이름이나 그림을 적어요. 글을 쓰기 어려우면 가리키고 어른이 적어 줘도 좋아요.

- ○ 4 · 파도의 편지
- ○ 2 · 별의 지도
- ○ 8 · 바람의 노래
- ○ 6 · 숲의 약속

1	2	3	4

같이 이야기해요 (건너뛰어도 좋아요)

이 네 권 중에서 정말 읽어 보고 싶은 책은 어느 거야?

루미의 찻잔은 어디에?

열심히 도왔으니 잠깐 쉬어 가자. 루미는 좋아하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담고 싶대. 비슷한 잔이 네 개나 있네. 루미의 말을 듣고 찾아 줄 수 있을까?

> "내 잔에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 종이에서 볼 때 손잡이는 오른쪽이야."

루미의 찻잔 메모 03



별 무늬 하나

손잡이는 **오른쪽** →

네 잔의 무늬와 손잡이를 살펴봐.

별 무늬에 오른쪽 손잡이. 어떤 잔일까?

고른 답 하나에 동그라미 해요. 말로 가리켜도 좋아요.



○ 달 · 오른쪽 손잡이



○ 별 · 왼쪽 손잡이



○ 별 · 오른쪽 손잡이



○ 나무 · 오른쪽 손잡이

같이 이야기해요 (건너뛰어도 좋아요)

네가 좋아하는 잔을 만든다면 어떤 무늬를 그릴래?

이 편지를 맡긴 친구

이제 우표 한 장만 더 찾으면 돼. 비 오는 날 우편국에 들렀던 친구가 마지막 우표를 맡겼대. 네 친구의 쪽지를 보고 누구인지 찾아보자.

> “나는 파란 우산을 들고 왔어.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그림책을 읽었지.”

친구들이 남긴 쪽지 04

그날 친구들의 우산, 차, 책

이름	우산	차	책
바다	파랑	차가움	지도
하루	노랑	따뜻함	시집
모아	파랑	따뜻함	그림책
누리	빨강	따뜻함	지도

같은 것이 하나만 있는 친구도 있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친구를 찾아봐.

메모와 모두 맞는 친구를 골라 줘.

고른 답 하나에 동그라미 해요. 말로 가리켜도 좋아요.

- ○ 바다
- ○ 하루
- ○ 모아
- ○ 누리

같이 이야기해요 (건너뛰어도 좋아요)

오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받을 편지

주소가 비어 있던 이유를 알았어. 이 편지는 함께 우표를 찾은 우리에게 온 거야! 봉투에 그려진 순서대로 우표를 붙여 보자.

> “나무 그늘에서 파도 소리를 듣다가, 달이 뜨면 별을 세어 보렴.”

우리에게 온 봉투 05

받는 사람

별빛 우편국

이 편지를 함께
찾아낸 우리



우표의 그림을 봉투와 같은 순서로 골라 줘.

봉투 그림 순서대로 우표를 골라 줘.

순서대로 아래 빈칸에 이름이나 그림을 적어요. 글을 쓰기 어려우면 가리키고 어른이 적어 줘도 좋아요.

- ○ 7 · 달
- ○ 2 · 나무
- ○ 9 · 별
- ○ 5 · 파도

1	2	3	4

같이 이야기해요 (건너뛰어도 좋아요)

편지를 열기 전에, 서로에게 “같이 해 줘서 고마워”라고 말해 볼까?

기다려 주고, 한 번씩 도와주세요.

아이가 원하면 힌트를 하나씩 알려 주세요. 답을 확인한 뒤 '완성 뒤 읽기'를 읽고 다음 놀이를 건네요. 자유 선택은 서로 달라도 괜찮아요.

---

1. 첫 배달을 도와줘

1. 맨 아래 왼쪽에 집이 있어. 숫자 4부터 시작해 보자.
2. 집 4에서 위로 가면 2, 오른쪽으로 가면 5야. 그다음 위쪽은 어디일까?

확인할 답
4 → 2 → 5 → 3

> **완성 뒤 읽기**
> 등대에 도착했어! 할아버지가 남긴 달 우표를 찾았네. 우표 뒤에 숫자 7이 있어. "길은 함께 찾으면 덜 어렵지?" 루미가 꼬리를 살랑 흔들어.

---

2. 책들이 집을 찾도록

1. 맨 처음에는 별의 지도를 골라 줘.
2. 가운데 두 권은 숲의 약속, 파도의 편지야. 마지막은 바람의 노래.

확인할 답
별의 지도 → 숲의 약속 → 파도의 편지 → 바람의 노래

> **완성 뒤 읽기**
> 책들이 나란히 섰어. 책장에 있던 나무 우표도 찾았네! 숫자는 2야. "혼자 정리할 때보다 훨씬 즐거워." 루미가 책등을 토닥여.

기다려 주고, 한 번씩 도와주세요.

아이가 원하면 힌트를 하나씩 알려 주세요. 답을 확인한 뒤 '완성 뒤 읽기'를 읽고 다음 놀이를 건네요. 자유 선택은 서로 달라도 괜찮아요.

3. 루미의 찻잔은 어디에?

1. 별 무늬가 있는 잔은 두 개야.
2. 별 무늬가 있는 두 잔 중에서 손잡이가 종이 오른쪽에 있는 걸 찾아봐.

확인할 답
별 · 오른쪽 손잡이

> **완성 뒤 읽기**
> "바로 이 잔이야. 내 말을 끝까지 들어 줘서 고마워!" 루미가 찻잔 옆에서 별 우표를 건네줘. 우표 뒤에는 숫자 9가 적혀 있어.

4. 이 편지를 맡긴 친구

1. 파란 우산을 가져온 친구는 바다와 모아야.
2. 둘 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림책을 읽은 친구는 누구일까?

확인할 답
모아

> **완성 뒤 읽기**
> 모아였구나! 모아의 쪽지 뒤에서 숫자 5가 적힌 파도 우표를 찾았어. "이 편지는 나를 찾아준 사람들에게 전해 줘." 마지막 부탁도 함께 적혀 있어.

기다려 주고, 한 번씩 도와주세요.

아이가 원하면 힌트를 하나씩 알려 주세요. 답을 확인한 뒤 '완성 뒤 읽기'를 읽고 다음 놀이를 건네요. 자유 선택은 서로 달라도 괜찮아요.

---

5. 우리가 받을 편지

1. 맨 처음은 나무 우표야.
2. 나무 다음에는 파도, 그다음에는 달이야.

확인할 답
나무 → 파도 → 달 → 별

> **완성 뒤 읽기**
>
> 우표 네 장이 꼭 맞게 붙었어. "우리, 끝까지 함께했네." 루미가 봉투를 살며시 건네줘.

다섯 장을 함께했으면 10쪽 마지막 편지를 열어 주세요. 말 대신 미소나 손짓으로 답해도 괜찮아요. 완성한 종이는 가족이 가져가 추억으로 간직해도 좋아요.

다음에 함께해 볼 것 (선택)

오늘 아이가 다시 하고 싶었던 장면: _____

다음 놀이에서 더 도와줄 부분: _____

다섯 장을 함께한 뒤 열어 주세요

우리에게 편지가 왔어요.

이 편지를 함께 찾아낸 여러분께,

안녕, 나는 모아야.
길을 같이 찾고, 책을 정리하고,
친구의 말을 들어 준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낼게.

서툴러도 기다려 주고, 어려우면 도와주는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오늘 같이 있어서 좋았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말을 전해 줄래?
말 대신 살짝 웃어 줘도 좋아.

다음 편지도 기다릴게. 친구 모아가.

오늘 기억하고 싶은 장면 하나

말이나 그림으로 남겨요. 비워 두어도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을 때 다른 종이 이야기를 꺼내 주세요.
100편의 종이 놀이 · byeolbit-post.pages.dev/paper.html